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

Richard Baxter's Ministry

亞細亞聯合神學大學校 大學原

神 學 科

李 潛 漢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

Richard Baxter's Ministry

- 「*The Reformed Pastor*」를 中心으로-

指導 원 중 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5월 일

亞細亞聯合神學大學校 大學院

神 學 科

李 潛 漢

李潛漢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亞細亞聯合神學大學院

2005年 5月 日

목 차

I. 서 론	1
A. 문제 제기 및 논문의 목적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2
C. 논문의 논지	4
II. 리차드 백스터의 생애	7
A. 출생과 성장	7
B.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	12
C.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 및 저작활동	17
III. 청교도 목사상(牧師像)	20
A. 청교도의 기원과 역사	20
1. 청교도의 기원	20
2. 청교도의 역사	24
3. 청교도운동의 정의	28
B. 청교도의 신앙과 교리	30
1. 청교도의 신앙	30
2. 청교도의 교리	32
C. 청교도의 목회	34
1. 청교도의 설교	34
2. 청교도의 복음전도	37
3. 청교도의 목사상	39
IV.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관	43
A.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배경	43
B.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동기와 대상	46
C.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자세	48
D.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방법	53

1. 공적인 설교사역	54
2. 교리문답과 상담목회	55
3. 권징의 시행	57
4. 가정목회	59
E.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	60
1. 설교의 유형	60
2. 설교준비	62
3. 설교에 대한 열정과 기술	63
F.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관의 특징	65
1. 성찰 -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	65
2. 성장(부흥)	69
3. 양육과 교육	71
4. 실천(말씀의 실천)	73
G. 리차드 백스터의 평가	75
V. 결 론	79
참고문헌	84
ABSTRACT	87

I. 서 론

A. 문제 제기 및 논문의 목적연구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사역(救援使役)을 목회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¹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牧會者)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우신 역사와 생활 속에서 그 사역(使役)을 이루어 가고 있다. 따라서 목사는 소명(召命)² 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아성찰(自我省察)을 통한 온전하고 신실한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救援使役)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선교 120여년을 맞는 한국사회의 목회자들과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목회에 대한 소명(召命)이나 하나님과의 자아성찰(自我省察)을 통한 자기 확신과 말씀이 삶에 실천되는 생활과 인격에 있어서 예전과 같지 않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회자로서의 사명(使命)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더욱이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갯피플 닷컴이 2003년 1월에 실시한 ‘갯피플 미래 목회자 리서치’에서 ‘당신은 어떤 목회자를 존경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위, 신뢰감이 드는 목회자(43.4%). 2위,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목회자(20.7%).

1. John, Calvin, 「英·韓 基督教 綱要 VOL, IV」 (서울: 기독교문출 판사, 1996), 93.

2. 프랭클린 M. 지글러, 「목회학개론」 이정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5), 칼빈은 주장하기를 만약 어느 누가 “교회의 참목사”로 간주되려면, 그는 교회의 “객관적 혹은 외적인 소명”과 “목사 자신만 의식하는” 은밀한 내적 소명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소명(召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확신)

3위,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18.2%). 4위, 목회 하는 실력이 탁월한 목회자(5.0%). 기타, (12.7%)로 조사되었다.³ 또한 위의 조사에서 ‘당신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1위, 가식적인 태도 때문에(49.7%). 2위, 교회 밖의 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13.9%). 3위, 설교를 잘못하기 때문에(7.4%). 4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1.8%). 기타, (27.2%)로 조사되었다.⁴ 이 조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과 삶의 일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하고 신실한 삶과 목회를 하며 많은 영향을 남겼던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를 연구하며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상(像)을 정립하고자 한다. 특별히 목회학(牧會學)의 고전(古典)이요, 원본(原本)이라 할 수 있는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 상(像)- *The Reformed Pastor*」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적인 목회자상(牧會者像)과 그리고 목회학적 정신과 교훈을 연구하고자 한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지금까지 리차드 백스터의 작품이 번역된 것으로는 『*The Reformed Pastor*』를 박 형용 박사가 「참목자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지 상우 목사가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각각 번역하였으며, 『*A Call to the*

3. www. Godpeople. com 2005년 5월 2일.

4. Ibid.

Unconverted』를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백 금산 목사가 번역하여, 성도로 감히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온전히 회심에 이르지 못한 자들과 물론 교회 밖에 있는 비회심자 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을 치절한 음성으로 성경에서 축출한 교리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The Saint's Everlasting Rest*』는 김 기찬 의 번역으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안식 그리고 성도가 누릴 참 안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리차드 백스터에 대한 연구로는 황 성철 교수의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신학연구”가 있으며, 석사논문으로 김 현애의 ‘백스터의 설교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본인은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학 적인 면에서 키더민스터를 중심으로 보여주었던 백스터의 목회가 어떠한 내용과 방법이었으며, 또한 키더민스터의 그의 목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의 부흥과 목회에 자그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리차드 백스터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며, 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의 목회, 설교와 저작 활동 등을 살펴보아 그의 삶과 정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하며 그의 삶이 그의 목회 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피도록 한다.

III장에서는 리차드 백스터가 생활했으며, 백스터의 신앙과 신학의 배경이 되는 청교도주의와 청교도 목회에 대하여 살펴보며 그 시대의 시대상과, 그 시대적 요구로써 청교도들의 목사상(牧師像)이 어떠한가를 연구하고

IV장에서는 리차드 백스터의 「참목자상」을 중심으로 그의 목회와 목

회관(牧會觀)의 특징을 연구하며

V장에서는 결론으로 리차드 백스터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의 예처럼 부흥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의 목회적 교훈은 무엇이며, 그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을 논하므로 이 논문을 마치려 한다.

본 논문의 범위로는 시대적으로는 17세기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도록 하겠다. 특별히 백스터가 목회 했던 키더민스터가 중심이 될 것이다. 리차드 백스터의 번역된 작품을 위주로 연구하다보니 조금 더 깊이 있고 광범위한 백스터의 자료들을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중점적으로 활용한 백스터의 “*The Reformed Pastor*”는 지상우 역 『참된 목자』를 중심으로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

C. 논문의 논지

리차드 백스터는 삶과 신앙과 목회가 일체감을 이루는 목회자였다. 그리고 백스터의 삶과 신앙과 목회는 성경 중심적인 것이었다. 목회자에게는 삶과 신앙과 사역의 유기체적인 온 전성 즉 통진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목회자는 위의 하나라도 부족하고, 무너지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다. 위의 요소 하나 하나가 삼위일 체적(三位一體的)인 특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리차드 백스터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과 목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경이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철저히 말씀선포와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⁵ 이러한 고귀함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백스터는 ‘자신의 심령에 설교’한 사람이라고⁶ 불리워진다. 필립스 브룩스는 1877년 그의 ‘예일 설교학 강좌, Yale Lectures on Preaching’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설교는 한사람에 의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전달이다. 가장 참된 진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형제의 인격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으로써, 결코 선포된 진리 자체가 아니다”. 즉 설교는 한인간의 음성, 생활, 심정, 이성, 아니 사실상 그의 전 존재를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다. 스펠전이 단상(壇上)이 아닌 ‘난간’에서 설교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⁷

설교자로서 상징되는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요, 말씀이 생활에 실천된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교도들이 고민했던 성경적 목회자 상을 실천했던 리차드 백스터의 삶과 신앙과 사역을 연구하여 참된 목자 상을 찾는데 목표가 있다.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는 청교도들이 고민했던 성경적 목회원리를 잘 실천한 목회자였다. 그는 그의 저서 「참된 목자 - *The Reformed Pastor*」를 통하여 목회자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성찰(省察)을 강조하며, 목회의 내용적인 면으로는 교리교육과 말씀교육을 강조하고, 방법으로는 신도들을 찾아가는, 소그룹의 형태의 목회를 실천하며 키더민스터에서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5. 피터 루이스,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창원 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1999), 89.

6. Ibid., 78.

7. W. A. 크리스웰, 「목회자 지침서」 김경신 역 (서울: 엠마오, 1988), 20.

백스터의 삶은 성경적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전을 주는 과정이었으며, 청교도정신은 그를 준비시켰고, 그의 키더민스터의 목회는 성경적 목회원리의 실천의 결과였다.

II. 리차드 백스터의 생애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정신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스터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백스터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의 목회사(史)와 설교와 저술 활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A. 리차드 백스터의 출생과 성장

리차드 백스터는 1615년 11월 12일 쉬롭셔(Shropshire)주에 있는 로우턴(Rowton)에서 아버지 백스터와 어머니 비아트리스 아드니(Beatrice Adney)사이에서 외아들로 출생하였다.⁸ 그의 아버지는 지주 계급의 상류층 자작농이었다. 그러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어린 백스터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야 했다. 1625년 경 그의 아버지가 홀로 성경을 읽는 중에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난 후부터 그의 생활은 변화되었다. 자연히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고, 백스터는 다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교육은 주로 교회학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교사들이 술에 취해 아이들을 구타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백스터는 교회 학교가 아닌 록세터의 도닝턴(Donington)에 있던 무료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독학을 하였다.

비록 학자들에게 의해서는 크게 무시되고 있지만 백스터는 러드로우

8.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서울: 이레서원, 2001), 157.

(Ludlow) 성에 있는 도서관을 아주 잘 활용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소장된 책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 특히 리차드 십스(Richard Sibbes)의 『상한 갈대』는 약 15세 안팎 나이의 그에게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⁹

16세에 자유 학교를 졸업한 그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였지만, 러드로우(Ludlow)성의 개인목사로 있던 그의 스승의 권면대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다. 백스터는 1년 반 이상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스승에게 사사했고, 1634년에는 스승의 명에 따라 런던으로 가서 헨리 허버트 경(Sir Henry Herbert)의 사환으로 들어갔다. 백스터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세월을 허송하지는 않았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독학을 결심하고 대륙의 종교 지도자들이 쓴 책을 구입하여 연구함으로써 종교개혁 사상을 배웠으며, 영국 청교도들의 서적을 구해 읽음으로써 청교도의 성경 중심적 세계관과 신학 사상을 익혔다.¹⁰ 비록 백스터는 예리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독학 한 사람들의 약점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¹¹ 온 정성을 다해 공부한 결과, 그는 1638년 위체스터의 주교에 의해 집사로 임명되었으며, 1639년 강림절에 위체스터의 감독에 의해 부제(副祭)로 임명되었다.¹² 1639년에는 더들리(Dudley)의 리차드 폴리학교의 교장직을 역임했으며, 더들리에서 1년 정도 근무한 후, 1639년 - 40년에는 브릿지노스(Bridgenorth)의 부목사로서 2년 동안

9. 리차드 백스터, 「회심」 백금산 역 (서울: 지평서원, 1999), 316.

10.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159.

11. 리차드 백스터, 「회심」, 316-17.

12. 제임스 패커, 「청교도 사상」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419.

학생들을 가르쳤다.

더들리 근처에 있는 몇몇 비국교도들과 친해지면서부터 그의 국교도적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령 무릎을 꿇거나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 등에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으나, 세례 때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했으며, 중백의(中白衣)를 입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며, 자기 교회의 예배의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징계가 부족한 것이었다. 즉 술주정뱅이와 거짓 맹세자 들에게 성찬식이 허용되는 것이었다. 그는 또 쉽게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조항 이나 설교나 예배 의식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함부로 서명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¹³

1641년 3월 백스터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은 작은 도시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의 세인트 메리(St Mary)교회였다¹⁴. 세인트 메리 교회는 규모가 작고 형편이 어려워서 담임하려는 목사가 없었다. 국교회 당국도 이 교회를 포기한 상태로 교인들은 일 년에 겨우 4번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1641년 - 42년에 걸쳐서는 키더민스터의 설교자 및 부목사로, 목회 했다. 1642년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록세터 사람들은 왕당파였다. 백스터는 비록 왕에게는 충성했지만 의회 편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잠시 동안 키더민스터에서 글로세스터(Gloucester)로 옮겨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1642년 - 45년 사이에는 코벤트리에서 군목으로, 그리고 그의 군목으로서의 생활은 웰리 연대(새로운 형태의 군대)에서 1645년 - 47년에

13. 리차드 백스터, 「회심」, 317.

14. 에롤 헬스, 「청교도들은 누구인가?」 이중수 역 (서울: 양무리서원, 2001), 137.

걸쳐 계속되었다.¹⁵ 백스터는 갑작스럽게 심하게 코에서 출혈이 생기는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종군 목사로 일한 지 18개월 만인 1647년 1월 제대를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은퇴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168권의 저서 가운데서 첫 번째 책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썼다.¹⁶ 그는 어려서부터 병약한 아이로 의사들의 도움과 약에 의존하여 성장했고, 성년이 되어서도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하였다.

제대 후 백스터는 교인들이 염려할 것을 우려하여 키더민스터로 돌아가지 않고 그를 아끼던 사람들의 간호를 받으며 5개월 정도 요양하였다.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오락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1647년 6월에야 키더민스터로 돌아갔다.¹⁷ 건강이 회복되자 키더민스터로 돌아간 백스터는 1647년부터 60년까지 모범적인 목회를 했다. 결핵증세와 신장결석으로 인해 계속 약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열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해 나갔다. 그와 그의 부목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가정별로 열네댓 사람씩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800가정에 대해서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목요일에는 소그룹을 위한 양심문제 상담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다¹⁸. 그는 1647년 - 61년 사이에는 키더민스터의 교구목사로서, 1661년에는 사보이 협의회에서 재직했다.¹⁹

1660년대 이후 백스터의 삶은 신앙적 시련의 시기였다. 당시의 영국은

15. 제임스 패커, 419.

16. 리차드 백스터, 「회심」, 320.

17. 오덕교, 「칭교도 이야기」, 162.

18. 리차드 백스터, 「회심」, 321.

19. 리차드 백스터, 「참된목자」 지상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1.

왕정복고 운동으로 인해 혼란 중에 있었다. 1662년 - 1691년까지는 런던 내에서 또는 런던 가까이에서 은밀한 생활을 했다.²⁰ 그는 1662년 9월 10일 자기보다 20살 연하인 마아가렛 철튼(1636 - 81)과 결혼하였으며, 그의 아내 마아가렛은 뛰어난 영적, 천부적 재능을 가진 자였다.²¹ 그러나 그의 가정은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1669년에는 클라켄웰에서 일주일 동안, 1685년 - 86년에는 남와크에서 21개월 간 투옥되기도 하였다. 1685 제임스 II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백스터는 이단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왕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는 말년을 수도원의 양로원에서 조용히 보내면서 그곳에서 가끔 설교하면서 그의 저작 활동을 마무리져 갔다.²² 그리고 그는 1691년 12월 8일 76세의 나이로 그는 죽음을 맞았다.²³

백스터의 신앙은 키더민스터와 런던에 고스란히 전수되었다. 백스터는 키더민스터에서 1641년 4월 부임하여 1642년 6월 크롬웰의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15개월, 질병으로 제대하고 1647년 6월 다시 부임하여 왕정복고가 된 1660년 4월까지 12년 9개월 간 목회 하였다. 그의 목회 기간은 14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있다.²⁴

그가 남긴 저작으로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 (*The Saint's Everlasting*

20. 오덕교, 「청교도이야기」, 168. 1662년 - 1663년에 무어필즈에서, 1663 - 1669년에는 액턴에서, 1669년 - 1673년에는 토터리지에서, 1673 - 1685년에는 블폼스베리에서, 1686 - 1691년에는 윈스베리에서 생활을 했다.

21. 에롤 헬스, 137-38.

22. 에드워드 힌슨, 「청교도 신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87-88.

23. 리차드 백스터, 「회심」, 327.

24. 오덕교, 「청교도이야기」, 170-71.

Rest) (1650), 「참목자상」(*The Reformed Pastor*)(1656), 「불신양인의 초청」(*A call to the Unconverted*)(1658), 「기독교의 예배모범」(*A Christian Directory*)(1673)과 그의 생애를 통해 출판되었던 131개의 다른 저작물들과 더불어 1696년 실베스터에 의해 편집된 자서전 「*Reliquiae Baxterianae*」이 있다. 그는 또한 그의 사후에 출간된 책 5권과 함께 출간되지 않은 많은 논문들을 남기고 있다. 그의 논문들의 주된 관심사는 목회와 기독교의 일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취미인 의학, 과학, 역사에 관한 것을 총망라한다.²⁵

B.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

리차드 백스터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은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의 세인트 메리(St Mary)교회였다. 그의 키더민스터에서의 목회적 업적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로스아트(A. B. Grosa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차드 백스터가 키더민스터에서 행한 사역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덕적인 사람(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열 손가락에 셀 수 있을 정도였으나, 오래지 않아 특정한 시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모든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²⁶

이처럼 백스터는 1650년대 후기에 청교도의 영국 전체의 목회자들에게

25. 제임스 패커, 419-20.

26. 리차드 백스터, 「회심」, 318-19.

널리 인정받을 정도로 귀감이 될만한 목회적 열매를 맺었다.

키더민스터 교구에는 약 8백 가정과 2천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마을에 위치하였다. 그래서 백스터는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²⁷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않지만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면서 영적 개혁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예배출석을 강력히 권하였다.²⁸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마치 “학교에 가야 되는 어린 아들이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다 가지고 있으니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 우리 선생님은 단지 문법만 가르칠 뿐이야. 다른 책들은 집에서 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예배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스터는 또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한 삶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고 다만 완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도들의 생활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당신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도, 당신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이와 같이 그는 성도들에게 쉬지 않는 기도 생활, 철저한 예배 출석 신앙의 실천을 호소함으로써

27. 제임스 패커, 422.

28.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160.

써 키더민스터 교회 부흥의 기초를 닦았다.²⁹

백스터는 키더민스터 교회를 청교도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다. 성도들에게 영국교회의 예배가 의식주의로 만연되었음을 지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신약적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가르쳤다. 또한 백스터는 종교적 외식을 싫어하였고, 진실하고 단순한 생활을 좋아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순하고 소박하게 드리던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의식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세례를 받을 때 성호를 긋는 행위, 성찬을 받을 때 제단 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행위, 그리고 목회자의 복장 착용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라고 지적하면서, 예배의 개혁을 촉구함으로써 키더민스터를 성경 중심적인 마을로 만들어 갔다.³⁰

백스터는 키더민스터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설교 준비와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독서하는 것이었다. 백스터는 런던에서 허버트 경의 집에 머물 때부터 친분을 쌓았던 화이트 홀(White Hall)서점의 주인을 통해 원하는 책을 모두 구입할 수 있었다. 그의 서재에는 책장이 부서질 만큼 책으로 가득하였고, 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친 적도 있었다. 그는 초대교회의 교부, 스콜라 철학자, 중세철학, 형이상학, 변증, 의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으며 둔스스코투스(Duns Scotus), 오컴(William of Ockham), 후턴(Hutton), 아퀴나스(Thomas Aquinas), 브래드워드(Bradwardne), 에라스무스(Erasmus) 등 중세 말기의 학자들의 글과 종교개혁자들의 저술들을 통해 그들의 사상에 통

29. Ibid., 161.

30. Ibid., 162.

달하였다.³¹

백스터는 키더민스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였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그의 조수와 함께 15가정 이상을 심방하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한 후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교리 문답을 가르쳤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경건한 생활을 실천 할 것을 격려했다. 그의 가정 방문과 가정 예배의 권장은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키더민스터의 모든 신자들은 가정예배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되었다.

백스터는 설교할 때에 청중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사학적인 언어보다는 “쉬운 말은 가장 귀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였고, 회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화체(talking style) 설교를 도입하였다. 그는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평이하고 화중적 이어야 한다. 만일 귀하가 가르칠 목적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강단에서 무엇을(위하여) 설교하나? 왜 이해되는 말로 설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이와 같이 백스터는 부자나 가난한자, 유식하거나 그렇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갔다.

백스터는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설교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설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음과 억양에 주의하였다. 그는 넓은 이마에 매부리코, 날카로운 눈을 가진 모습으로 병약하였으나 불

31. Ibid., 163-64.

같은 열정,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죄를 책망하면서 설교하였다. 그는 설교의 초점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두었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죄인을 설득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초청』(Call to the Unconverted, 1663)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였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회개를 종용하였다. 그는 “거듭남은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을, 죽음은 영광의 왕국을 선사한다”라고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회개를 지체하면 할수록 “죄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다. 만약 가지를 꺾을 수 없다면 하물며 그 가지가 나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다.³²

백스터의 설교에 청중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였고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화답하였다. 그 결과 키더민스터 교회는 매주 600여 명의 신자가 회집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5개의 갤러리를 더 확장해야 했다. 부흥 운동에 힘입어, 아침과 저녁의 가정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골목이 찬송과 기도 소리로 메아리쳤다. 한 가정에서 찬송이 끝나면 다른 가정에서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는 노후에 키더민스터 교회의 부흥을 말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그곳(키더민스터)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거리에 한 가정 정도 있을까말까 했다. 그러나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진지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가족은 하나도 없었다”고 간증하였다.³³ 키더민스터 교회는 교회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교회

32. Ibid., 165.

33. Ibid.

부흥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C.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 및 저작활동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글을 많이 쓴 청교도 설교가요 저술가 중 한사람인 백스터 목사는 또한 청교도 흐름 위에 가장 산뜻하고 낭만적인 인물 중 한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에게는 국가나 교회가 부여한 어떤 특정한 명예가 따로 없었다. 그는 목사요 설교가요 저술가였다. 그의 신학적인 저술들은 그의 동년배들에게 격분과 아울러 칭송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의 살아있는 정신은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것이었다. 그의 폭넓은 천재성과 관대한 정신은 그의 140여 편의 작품 속에서 잘 관찰될 수 있다. 그의 저술들은 학문적인 라틴어와 영어논문으로부터 가족들을 위한 단순한 요리(要理)문답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었다.³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가장 실제적인 지침서까지도 발간하였다.

경건한 청교도 저술가들 중에 리차드 백스터는 처음부터 내용과 양식 모두의 장엄함에 있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았다. 문체의 명쾌함과 힘, 질서와 열정, 지혜와 온정, 넓이와 깊이, 목회자의 신실성과 권위는 그의 모든 저작들에 함께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자신의 사고를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첫 번째 저서 『성도의

34. 피터 루이스,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창원 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1999), 42.

영원한 안식』(*Saints' Everlasting Rest*, 1649)을 시작으로, 『참목자상』(*The Reformed Pastor*, 1656), 『회심에 대한 논문』(*The Treatise of Conversion*, 1657),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한 부르심』(*A call to the Unconverted*, 1658), 『확실한 회심을 위한 지시와 설득』(*Directions and Persuasions to a Sound Conversion*, 1658), 『연약하고 병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시』(*Directions for Weak, Distempered Christians*, 1669),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못박는 것』(*Crucifying the Word by the Cross of Christ*, 1658), 『보편적 통일』(*Catholic Unity*, 1659), 『자기부정』(*Self-Denial*, 1660),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발견자의 헛된 신앙』(*The Vain Religion of the Formal Hypocrite Detected*, 1660), 『자기 무지의 해악』(*The Mischiefs of Self-ignorance*, 1662), 『신령한 삶』(*The Divine Life*, 1664), 『신앙의 생활』(*The Life of Faith*, 1670), 가족이 필히 휴대해야 할 참고서는 『기독교 훈령집』(*Christian Directory*, 1673), 『빈자의 가정서』(*Poor Man's Family Book*, 1674), 『가정 교리 문답』(*The Catechizing of Families*, 1683) 등이 있다.³⁵

이러한 리차드 백스터에 대한 저술에 대해서 동(同)시대를 살았던 베에츠(Bates) 박사는 “그는 성령에 감동되고 천상의 불을 내뿜어 죽은 죄인에게 열기와 생명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무덤에 갇힌 완고한 자들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땅에 있는 동안 그 책은 끊임없이 효과를 내어 길 잃은 죄인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책에는 독자로 하여금 깨어 있고 주목하게 만드는 힘찬 맥박이 있습니다”³⁶ 라고 평할 정도로 백스터의 저작은 신

35. 제임스 패커, 83.

양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36. 리차드 백스터, 「성도의 영원한 안식」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9.

Ⅲ. 청교도 목사상(牧師像)

본 장에서는 리차드 벅스터의 신앙과 목회학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청교도 운동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청교도 정신이 요구하는 청교도 목사상(牧師像)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벅스터의 신앙과 목회학적 특징이 형성되게 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A. 청교도의 기원과 역사

1. 청교도의 기원

청교도주의는 영국에서 일어났다. 비록 대륙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장려 받기도 했으나 청교도주의는 특별히 영국적인 조건들 하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⁷ 20세기에 청교도에 대하여 관심의 물꼬를 튼 마틴 로이드 존스는 (Martyn Lloyd-Jones, 1899-1981)청교도주의에 대하여 언급하길 “그들은 종교개혁이 불완전하며, 단순히 교리를 바꾸고 거짓된 로마 카톨릭 교훈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종교개혁은 실제 차원에서도 이행되어야 하며, 구체화되어야 한다”³⁸ 는 것이 청교도주의의 핵심적이고

37. 알렌 카든, 「청교도 정신」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5.

38. 마틴 로이드 존스, 「청교도 신앙」 서문 강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344. 마틴 로이드 존스는 종교개혁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카톨릭적 의식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들이 전형적인 청교도 사고 방식이요 행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홀튼 데이비스(Horton Davies)는 “예배 예식의 개혁에서 시작해서 삶에 대한 독자적인 자세로까지 발전된 운동이 청교도 운동”³⁹ 이라고 말했다.

청교도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그 주장들이 갈라서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1524년의 성경 번역자인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에게서 최초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으며, 리랜드 라이큰은 그의 책 『청교도-이세상의 성자들』에서 청교도운동의 기원을 16세기 중엽까지 그 뿌리가 올라갔음을 주장하며, 윌리엄 틴데일은 인기 있는 설교가요 복음 전도자였던 휴 래티머(Hugh Latimer)와 토머스 비콘(Thomas Becon)과, 카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의 치하에서 박해(1553-1558)를 피해 대륙으로 도망한 개신교 망명자들도 청교도의 뿌리로 보고⁴¹ 있다.

퓨리탄(puritan)이란 말은 라틴어의 “puritas(purity)”에서 유래한 말로 ‘순수하게 하다’ 또는 ‘청결하게 하다’⁴² 는 뜻이다. 토마스 풀러(Thomas Fuller)박사는 그의 역작 『교회사』에서 ‘청교도’라는 말의 최초 사용 연도를 1564년이라고 추측했다.⁴³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청교도의 기원을 크랜머 시대보다 급진적인 개신교도들 특별히 존 후퍼 감독(Bishop John Hooper, 약 1495-1555)까지 추적될 수 있다고 본다.⁴⁴ 또한

동이었다고 본다.

39. 리랜드 라이큰, 「청교도-이세상의 성자들」 김성웅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39.

40. 마틴 로이드 존스, 341.

41. 리랜드 라이큰, 38.

42. 임희완, 「청교도 삶. 운동. 사상」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9), 28.

43. 제임스 헤론, 「청교도 역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26.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는 청교도라는 명칭이 보편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1563년부터 1567년 사이에 의복 또는 예복분쟁(Vestiarian Controversy)이 있던 때부터⁴⁵ 라고 한다.

1560년대 초기에 만들어진 ‘청교도’(Puritan)라는 명칭은 사실상 출발부터 비방이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라오디게아적이고 타협적인 영국 국교회에 대한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불만이라는 기본적인 암시 외에 까다롭고, 비판적이며 자만하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야유와 비방이었다. 후에 이 말은 스튜어트 왕조(Stuart monarchy)에 반대하고 공화주의에 동조한다는 보다 발전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⁴⁶ 그러나 이 말의 근본적인 연상은 여전히 기묘하고 격렬하고 추악한 신교의 형태에 대한 것이었다.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에 의하면 1642년 이후부터는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독설이나 풍자로 말하여진, ‘장로교도’(Presbyterian)라는 말로 대치되었다⁴⁷ 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청교도’라는 호칭에 조롱과 비웃음의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하여 엘리자베스 시대의 청교도인 토마스 샘슨(Thomas Sampson)은 1574년 그린달(Grindal) 감독에게 쓴 글에서 그 무례한 별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⁴⁸ 그러나 대체적으로 ‘청교도’라는 말은 비방하는 뜻과

44. 제임스 화이트, 「개신교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07.

45. 마틴 로이드 존스, 261.

46. 제임스 페커, 19.

47. 에드워드 힌슨, 「청교도 신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7.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두 개의 근원에 모두 적용되었던 이 운동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48. 제임스 헤론, 26. 토마스 샘슨 박사는 “그 누구도 정당하게 잘못을 찾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중복되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사용되었다.

첫째로는, 영국 국교의 기도서 의식들과 어구 일부를 꺼렸던 목회자에게 쓰여졌고 두 번째로,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와 1572년의 의회에 의해 발의된 장로교 개혁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에게 쓰여졌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비국교도들은 아니나 진지한 칼빈주의 경건을 실행했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쓰여졌고, 네 번째는, 도르트 종교회의(Synod of Dort)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영국 국교도들에 의해 교리적 청교도라고 불려졌던 그 회의를 성원한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에 대해 쓰여졌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들과 영국 법률과 백성의 권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존중을 표시한 하원의원, 치안판사, 그리고 그 밖의 귀족들에 대해 쓰여졌다.⁴⁹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청교도의 기원은 1524년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에게서 최초의 기운이 시작되어 1662년에 있었던 대추방(Great Ejection)⁵⁰ 으로 인해 국교도적 청교도주의는 기운을 다하였고, 영국 국교회 속에 청교도주의를 심으려는 시도는 1663년에 이르러 완전히 결론지어졌

수 없는 교리와 생활을 지닌 형제들에게 이런 옳지 않는 이름을 부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흠 없는 외투를 찢는 것이며 교회 내의 치료할 수 없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로에 거치는 돌을 놓는 것이다. 그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49. 알렌 카튼, 37-38.

50. 1662년에 “검은 바돌로매의 날”(Black Bartholomew’s Day)로 알려진 8월 24일에 2,000명에 달하는 청교도목회자들이 통일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다. 토마스 라이(Thomas Lye)는 이렇게 말하였다 : “영국에서 일어난 일 중 최대의 전환이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생활(생계)을 잃었다.” 신앙을 위해 희생을 당하고 생활터전에서 추방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이 전에는 일종의 비국교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대추방령을 통하여 공식적인 비국교도가 생기게 되었고, 청교도주의는 영국 국교회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⁵¹ 또한 『퓨리타니즘의 진수』(*The Genius of Puritanism*)라는 책을 쓴 피터 루이스(Peter Lewis)는 청교도주의는 “그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엘리자베스 1세 때 시작해서, 그것을 두려워한 제임스 1세 때 성장하고, 그것을 경멸한 찰스 1세 때 세력이 커졌으며, 그것을 영화롭게 한 크롬웰 때 짧은 기간이지만 당당한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그것을 미워한 찰스 2세 때 끝이 났다”⁵² 고 청교도주의의 생성과 마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2. 청교도의 역사

영국의 종교개혁은 아이러니 하게도 로마카톨릭 교회가 “믿음의 수호자”(defender of the faith)라는 칭호를 수여했던 헨리 8세(Henry VIII, 통치기간: 1509-1547)로부터 시작되었다. 헨리 8세는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다. 헨리의 선동으로 1534년의 종교개혁 국회(The Reformation Parliament)는 영국교회를 세우고 왕을 영국교회의 지상에서의 최고 수반으로 인정했다. 이 조치는 권력과는 많은 관계가 있었던 반면에 교리나 교회의 폐습의 순수한 개혁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이때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를 주도한 사람은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과 존 후퍼(John Hooper)와 같은 이였다.⁵³

헨리 왕을 계승한 에드워드 6세(Edward VI, 통치기간: 1547-1553)는 적

51. 마틴 로이드 존스, 362.

52. I. D. E. 토마스, 「퓨리탄의 힘」 오태용 역 (서울: 바른신앙, 1991), 39.

53. 알렌 카든, 15-16.

극적인 개혁을 주도했고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는 영국에 확실한 개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의 단기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영국은 교회개혁의 열매를 다 맺지 못하고 만다.⁵⁴

1553년 어린 에드워드의 죽음은 그의 이복 자매인 열성적 카톨릭 신자 메리(Queen Mary, 통치기간: 1553-1558)를 영국의 왕좌에 오르게 했다. 메리는 자신의 영토를 로마 교회에 대한 충성된 신앙으로 복귀시키겠다고 결심했다. 이일은 에드워드의 통치 동안 이루어진 변화들로 인해 매우 어려웠지만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일부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으나 토마스 크렌머를 포함한 많은 신교도를 순교시킴으로 “피의 매리”(Bloody Mary)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밖에 수백 명은 대륙으로 망명하여 프랑크푸르트, 쥐리히, 바젤, 스트라스부르크, 제네바에 영국 신교 공동체들이 성장하였다. 후에 청교도주의로 꽃 핀 씨앗이 가장 효과적으로 심어져 양육된 곳이 바로 존 낙스(John Knox)가 거했던 칼빈의 제네바였다.⁵⁵

5년 동안의 통치 끝에 메리 여왕이 죽고, 이복 자매인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통치기간: 1558- 1603)이 즉위하여 영국을 다시 개신교 국가로 복귀시킨다고 선언했다. 망명에서 돌아온 많은 영국교회 개신교 성직자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교회개혁이 그들의 기대 보다 훨씬 미온적이고 확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자베스에게 성급히 도전할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영국을 개신교 국가로 환원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1558년 엘리자베스가 통치를 시작한 후 첫

54.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8.

55. 알렌 카든, 17.

10년 동안 성직 복과 예배형식 등의 덜 심각한 문제로 개혁을 부르짖었고, 이때부터 청교도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드디어 1569년부터는 그들은 영국교회 정치제도 개혁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영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영국교회의 정치제도, 곧 왕권 하의 감독제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에서 본 정치제도인 장로교회제도가 성경 적인 것으로 보았고 또 일부는 회중교회 제도가 성경 적이라고 보았다.⁵⁶ 그러나 약삭빠르고 실제적이며 매우 총명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권력에 머물고자 할 때 취해야 하는 유일한 선택의 여지는 신교 체제 내에서의 중도적 신앙자세인 것을 알았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 중재안 ”(“엘리자베스의 타협안”으로도 알려진)⁵⁷ 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1570년에 교황은 엘리자베스에게 파문을 내릴 정도로 신 교적이었지만 독실한 개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너무나 로마교회적인 인물⁵⁸ 이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개혁이 희석되는 사태를 참지 못했다. 그들이 보기에 영국교회는 “반밖에는 개혁되지 않은”상태⁵⁹ 로 보아 그녀의 치하에 반대하는 청교도들과 왕의 종교정책에 찬동하는 성공회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 싸움은 제임스 6세에서 찰스 1세로 이어지고 급기야 시민전쟁인 퓨리탄 혁명으로 발전하게 된다.⁶⁰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장로교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임

56. 원종천, 9.

57. 이 타협안은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적인 교리, 예배 의식서와 (청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카톨릭 적인 예배 형식의 존속, 그리고 감독 교회 적인 정치 형태를 뭉뚱그려 놓은 것이었다.

58. 알렌 카든, 18.

59. 리랜드 라이큰, 38.

60. 이형기, 「세계교회사」(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229.

스 1세(James I, 통치기간: 1603-1625)가 즉위하게 된다. 그 때에 청교도들은 교회개혁을 위하여 그에게 대단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청교도의 제안을 거부했고, 왕 중심의 감독제도에 순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때 청교도들은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영국에 남아서 영국 교회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개인과 가정의 영적 개혁을 위한 경건 추구 운동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국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지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나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교회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이 실제로 이어졌는데 1620년에는 백 한 명의 분리와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했고, 1630년에는 약 천 명의 독립파 청교도 무리가 역시 신대륙으로 이주했다.⁶¹

제임스 1세의 후계자 찰스 1세(Charles I, 통치기간: 1625-1649)가 즉위하고도 청교도 탄압은 계속되어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꾸준히 설교사역과 출판을 통하여 개인의 영적 개혁을 추구하고 영국의 중산층과 신사계급(Gentry)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1640년에 들어서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의회와 불화를 가졌던 찰스 왕은 드디어 정치적으로 의회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미 청교도 성직자들에 의하여 많은 감화를 받아 청교도화 한 대부분의 의회 의원들은 청교도들과 많은 영국국민들의 힘을 입어 왕에게 대항하게 되었다. 1642년 왕정과 군대와 의회파 군대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1646년 전쟁은 의회 파의 승리로 끝나고 영국은 왕정제도와 영국교회 감독제도를 폐지하였다. 국가는 의회가 다스리는 의회제도를 택했

61. 원중천, 9.

고 영국교회는 장로교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청교도의 승리였다. 그러나 의회통치와 ‘호국경’인 크롬웰(Oliver Cromwell, d. 1658)의 통치로 이루어진 20년의 청교도 통치는 실패하여 무너지고 왕정이 복귀되며 영국교회는 왕정중심의 성공회 감독제도로 환원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교도 통치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분열이었다.⁶²

3. 청교도운동의 정의

청교도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제임스 팩커(James. I. Paker) 박사는 어떤 정의로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³ 청교도 운동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혹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왔고, 그 결과 보는 시각에 따라 청교도 운동의 성격이 조금씩 상이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청교도운동을 종교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려는 이들은 청교도 운동을 종교개혁의 범주 속에서, 또 청교도 운동을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이들은 시민혁명이나 계급혁명, 또는 미국 독립혁명과 같은 맥락에서 개신교 정통주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들은 정통주의적인 맥락 속에서 조명하여 왔다. 그러므로 청교도 운동의 성격과 정의를 한마디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논문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적 입장과 목회자적 입장에서 청교도 운동의 정의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2. Ibid., 10.

63. 피터 루이스, 9.

청교도 운동은 무엇보다도 신앙운동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 청교도를 세속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비종교적인 세대가 잉태한 산물이요, 아무리 청교도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음을 간과한 작태이다.⁶⁴ 더욱이 청교도들의 순수한 개혁의 외침은 성경이야말로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⁶⁵ 청교도 운동에서 가장 큰 현안은 (종교개혁의 일반적인 현안이기도 했지만) 권위에 관한 문제였다. 청교도들은 성경이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⁶⁶ 피터 루이스(Peter Lewis)는 청교도 운동의 본질적인 것들이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첫째, 개인의 경건 생활의 신약 적인 모습. 둘째, 건전한 교리. 셋째, 질서 있는 교회생활 이 세 가지 요소의 혼합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세 요소의 조화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청교도운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⁶⁷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칼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한사람의 체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 아마 단순히 “성경주의자”로 알려지고⁶⁸ 싶었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는 성경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의 명령에 따른 경건한 도덕생활을 준수했고 사치와 허례허식에 반대했다.⁶⁹

64. 리랜드 라이큰, 43.

65. 알렌 카든, 37.

66. 리랜드 라이큰, 48.

67. 피터 루이스, 16.

68. 알렌 카든, 60.

69. 정승훈, 「종교개혁과 21세기」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1), 248.

제임스 팩커(J. I. Paker) 박사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 적이고 칼빈주의적 신조를 공유했으며. 둘째, 영국 국교회의 예배에서 카톨릭 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영국 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의 공유였다. 셋째, 교리 문답 적이고, 복음 적이며, 경건주의 적인 문학을 공유하였다.⁷⁰ 그의 주장은 청교도운동의 특징과 정의를 이해하는데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교도 운동이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사회와 교회의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신앙운동이었다는 것이다.

B. 청교도의 신앙과 교리

1. 청교도의 신앙

청교도 신학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첫째로는 설교자들이었고, 둘째로는 신학 저술가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저서들은 주로 그들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교리를 기독교인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한 것 때문에, 그들의 저서들은 자연스럽게 실천적 신학으로 되어졌다. 청교도들은 상아탑의 신학자들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설교자였다.⁷¹ 이러한 신앙적 바탕으로 설교와 훈련을 받은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밀러(Miller)는 말하기를 “청교도란 과거 역사가들이 오랜

70. I. D. E. 토마스, 31.

71. 에드워드 힌슨, 18.

동안 생각해온 것같이 수척한 몸매에, 검은 모자를 쓰고 머리는 길다랗게 늘어뜨린, 흥이나 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우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영적 헌신의 깊은 지각을 소유한 다채로운 사람들이었다. 17세기 청교도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청교도를 묘사하기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가장 좋은 기독교인이란 가장 좋은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주인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교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고,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⁷² 하였다. 그들은 균형 잡힌 칼빈주의자들 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건전한 신앙과 교리의 모범을 남겨 주었다. 또한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깊은 기도와 헌신된 삶을 촉구한다. 그들은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과 영적인 전쟁의 실체와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⁷³ 있다. 청교도주의는 교리와 체험과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 매우 성경 적이며 균형적이다. 그래서 청교도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

청교도들은 소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과 같이 될 수 있으면 세상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경건 되어 살려고 하였다. 크랜머는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선한 행위를 수반한다”고 말했는데 이처럼 청교도들은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사회를 세우자는 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뼈대였다.⁷⁴

72. Ibid., 17.

73. 에롤 헬스, 80.

74. 원중천, 11.

청교도 신앙은 카톨릭 신앙과 크게 대조되었다. 신플라톤주의(Neo Platonism)를 기초로 한 후자는 기독교인의 생활 가운데 정죄(淨罪), 조명, 연합 세 가지 단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청교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모든 영적인 생활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지고, 그와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간직하는 처음 과업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진리에 충실하는 것이 청교도 신앙의 진정한 특성들이었다.⁷⁵

2. 청교도 교리

청교도주의의 위대성은 진실한 교리와 올바른 실행의 유일한 출처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조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전인격을 통합시키는 생활 철학이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과학, 논리학, 철학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각 분야와 연관시켜 통합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성경이 이성과 학문으로 더불어 조화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단순한 이성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도록 버려 두지 않았다.⁷⁶ 그들은 성경을 모든 분별 있는 진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서 실체를 분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

75. 에드워드 헨슨, 22.

76. Ibid., 22-23.

님의 진리」만이 인간의 필요에 대한 유일한 분별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청교도들의 경건과 건전한 교리는 21세기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 그들은 균형 잡힌 칼빈주의자 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건전한 교리의 모범을 남겨 주었다.⁷⁷ 청교도주의는 교리와 체험과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성경 적이며 균형적이다. 청교도주의는 대부분 세속 철학적이고 피상적인 사상들(ideologies)의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참된 교리를 구체화함으로 사람들 앞에 분명한 진리의 빛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무언가 다른 빛나는 삶을 보았으며, 또한 그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깜짝 놀랄 만한 풍경의 도덕적, 영적인 대륙으로 이끄는 삶을 보았던 것이다. 청교도들에게는 영적 삶의 생생함과 더불어 성경 적인 사상 위에 서있는 성경 적인 삶에 기초를 둔 교리적 올바름과 견고함이 반드시 있었다.⁷⁸

근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은 교리적 오류로부터의 이탈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둘 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워 왔다.⁷⁹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도 그의 책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청교도들의 교리의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판단과 건전한 마음, 건전한 대화(삶)와 건전한 양심을 만든다’-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는 올바른 것이 아니든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것일 것이

77. 에롤 헬스, 80.

78. 피터 루이스, 17.

79. 에드워드 힌슨, 26.

다!⁸⁰

C. 청교도의 목회

1. 청교도의 설교

설교는 청교도의 심장과 같다. 초기 청교도 중의 한 사람인 윌리엄 브렛쇼(William Bradshaw)는 그의 저작 중 한 구절에서 청교도 전체를 대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목회자가 지닌 최고 최상의 직분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적용시킴으로써 엄숙하게, 그리고 공적(公的)으로,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⁸¹

엘리자베스 1세 당시의 청교도주의가 그 신선한 기운을 드러낼 무렵 윌리엄 퍼킨즈 목사는 청교도 젊은이들인 캠브리지 청중들에게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설교임을 알렸다. 후에, 청교도 운동의 쇠퇴기 무렵에도 로버트 드라일(Robert Traill) 목사는 『목사들이 무엇으로 영혼들을 잘 건질 수 있을까?』(By what means may ministers best win souls)라는 설교에서 ‘목사의 주된 일은 설교이며 설교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이 얻게되는 주된 유익은

80. 피터 루이스, 17.

81. 브루스 비클, 「복음과 청교도 설교」 원광연 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2003), 22.

목사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퍼킨즈 목사가 주장했던 말을 거의 반복하였다.⁸² 종교적 대 적자들의 입장에서 영국 청교도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그 대 적자들을 가장 떨게 만든 것이 바로 청교도의 설교였다는 것이다. 17세기 초 영국을 강타 한 것이 청교도의 강단이었다. 영국 국교회의 한 런던 주교는 청교도들을 가리켜 “카톨릭쟁이들이 걸핏하면 순례를 떠나듯이 뺏길나게 모이는 작자들” 이라며⁸³ 불평을 내뻗었다.

청교도들의 설교가 그렇게 인기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설교에 대해 보였던 투철함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우리를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근처로 데려간다” 고 말한 존 프레스톤에게서 그들이 지녔던 태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⁸⁴ 리차드 백스터의 글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발견한다.

우리가 학과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또는 식사를 복창하는 것처럼 읽는 어조나 낭독하는 어조로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감동이 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분발시키고 우리의 신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관해서 설교하며 열정을 가지고 “불에서 그들을 꺼내어”그들을 구해내도록 하자.⁸⁵

또한 백스터는 그의 책 『참목자상』 (*The Refomed Pastor*)에서 설교자의 임무와 그 임무의 어려움 들에 대해 매우 정교한 정의를 내렸다. 그의

82. 피터 루이스, 66.

83. 리랜드 라이큰, 196.

84. Ibid., 203.

85.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지상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178.

정의는 청교도의 설교는 기독교 교리의 교육으로 신앙적 감동에까지 이룸으로,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을 훼방하는 비평 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으로 구원을 목표로한다는⁸⁶ 것이다.

청교도 설교가들은 주도 면밀하게 설교를 준비했다. “고민에 찬 설교”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었다. 그것은 자기 고민이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며, 면밀히 준비한 설교를 말한다. 대부분 목사들은 짚막한 메모를 가지고 설교했지만, 완벽한 원고를 작성하는 설교가 들도 제법 있었다.⁸⁷ 청교도들은 설교를 계획하고 치밀하게 구성했다. 길고 세밀했지만, 결코 축 늘어지지 않았다.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갔다. 설교 내용이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방법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진리를 지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생활에 신학적인 교리가 적용되도록 했다.

청교도는 성경을 개인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적용을 수반하여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설교했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의해 자신들의 내용을 믿을 수 있고 설득력 있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는 것이 되도록 애쓰는 사람들로 설교했다. 청교도의 강단의 열정은 파악하고 파악되어야 하는 은혜와 경건,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회중을 위한 명확한 구현이 되고자 하는 열망의 소산이었다.⁸⁸

청교도들의 설교의 방법과 특징으로는 교리와 신학을 떠받들었지만 성경 본문의 의미를 활짝 여는 강해 설교를 거의 절대적으로 지지했으며, 지

86. 홀튼 데이비스, 「청교도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96.

87. 리랜드 라이큰, 209.

88. 제임스 패커, 389.

적이면서도 전체하는 설교를 꺼렸고, 교리적 이면서도 쉽고 편안한 설교를 선호했다. 윌리엄 퍼킨즈도 “설교는 쉽고 명료하며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청교도의 복음전도

청교도의 복음전도라는 제목은 단순하지만 청교도신앙의 핵심과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하는 신학적, 목회적 고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청교도들도 복음전도라는 과제에 고민했을까? 언뜻 볼 땐 아닌 것 같다. ‘복음전도(Evangelism, 20세기의 단어)’는 그들의 어휘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전도가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없어야겠다. 복음전도는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⁸⁹ 복음전도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예로써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불신자에게 주는 초청』(*A Call to the Unconverted*)과 조셉 얼라인(Joseph Alleine)의 『불신자를 향한 경고』(*An Alarm to the Unconverted*)가 있다. 청교도들은 모든 설교를 전도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물론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교도의 설교에는 항상 복음 전도의 측면이 담겨 있다.⁹⁰

존 메이어(John Mayer)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이다…… 우리의

89. Ibid., 402.

90. 에롤 헬스, 187.

회심과 믿음 및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⁹¹ 이처럼 설교의 목적을 복음선포와 구원에 두었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청교도 복음전도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길 원하는 데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혼돈과 유혹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전도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칼빈주의적 유형으로 회심과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주장과 또 하나는 알미니안적 유형으로 복음으로의 초대와 인도 그리고 결심 이러한 모든 과정과 진행이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알미니안적 유형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미국의 찰스 피니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가운데에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교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청교도 전통에 속하는 결정적인 책으로 제임스 팩커(J. I. Packer)의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율배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두 개념은 사실은 모순이 아니고 완전히 양립적 이라도 주장한다.⁹² 그는 빛의 유추를 예로 들며 빛이 광선과 입자로 구성됐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믿음으로써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공존한다고 말한다. 청교도의 복음 전도에 대한 교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교리로서 설교

91. 피터 루이스, 70.

92. 에롤 헬스, 182.

와 생활에 적용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교도적 복음전도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리처드 백스터는 그의 복음전도적 삶과 목회의 결과와 교훈이 키더민스터의 목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백스터가 「참목자상」을 통하여 주는 교회생활의 기본원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라 볼 수 있는 데 복음전도는 불변적으로 우선되는 사항이어야 한다⁹³ 는 것이다.

3. 청교도 목사상(牧師像)

청교도의 목사상(牧師像)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성직자들과 국교회의 성직자들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이 청교도 목사상(牧師像)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중세의 많은 사제들이 무능하고 타락했음을 알고 있듯이 영국 국교회의 많은 목사들도 성직을 사회적인 배경으로 차지하고 있었다.⁹⁴

성직을 사회적인 배경으로 여긴 국교회 목사들은 “돈이 필요했고” 따라서 소속도 되어 있지 않은 교구에서라도 생활비를 긁어모으느라 혈안이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글을 살펴보자

93. 제임스 패커, 428.

94. 리랜드 라이큰, 「청교도-이세상의 성자들」 김성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198. 허드슨은 후원제도에 관해 이렇게 묘사한다. “나라에 속한 주교가 성직임명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교구 배치권은 지방의 유력한 평신도가 쥐고있기가 일수였다. 그리고 후보자가 간신히 자격 조항을 만족시키는 정도라도 주교에게 압력을 넣어 부임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어떤 성직 후보자가 임직 자격이 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시험에서 주교는 오로지 후보자의 정치적인 성향만을 문제삼았다. 주교는 영국 왕을 종교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맹세를 하고 예배서를 사용하겠다는 데 합의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받았고, 다른 점에 관해서 라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한 주교였던 성 아삽의 윌리엄 휴즈(William Hughes of St. Asaph)는 부주교 직을 맡아 모두 16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았고, 아내, 자녀, 누이 그리고 사촌들에게 땅을 임대해 줄 정도였다. 더 전형적인 예는 6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은 대주교 뱅크로프트(Bancroft)였다. 청교도 조사단들은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국교회 교구 사제들과 부사제들이 카드놀이, 주사위 놀이, 그리고 여러 잡기(雜技)에 시간을 허비하며 “선술집 주변을 맴도는” 위인들이요, “술주정뱅이에 호색가”, “하는 일이라고는 다치거나 병든 사냥매를 돌보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폭로했다.⁹⁵

백스터의 고향인 로우튼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4명의 낭독자(reader)가 있었는데 한사람도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 가운데 2명은 부도덕하여 성도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 백스터 가정의 출석하던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로, 낭독자는 기도문을 읽거나 설교를 할 수 없는 나이든 시각장애자였다. 어떤 성직자는 설교준비보다 술집에 앉아 즐기다가 교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하였으며, 목사들의 재정적인 타락도 극에 달하였다.⁹⁶

이러한 배경 때문에 청교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경건한 목사”를 높이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리처드 버나드(Richard Bernard)는 “평범한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보다 그의 삶을 더 존경한다”고 하는 말로 청교도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했다. 윌리엄 퍼킨즈 역시 비슷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열심을 일으켜야 할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경건한 감화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교도 운동이 낳은 영향중의 하나가 학식 있고, 경건하며, 진실하고, 교

95. Ibid., 198-99.

96.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158.

양 있는 목사의 자질을 갖추게 한 것이었고, 목사가 담당해야 할 큰 의무 세 가지를 설교하고, 성례를 집전하며, 기도하는 일 이라고 했다. 영국 국교회에서 교구 사제들의 지적 능력이나 도덕성이 썩 중요하지 않았던 데에 비해, 설교를 강조한 청교도들은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교육 받은 목사가 필요했다. 또한 청교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살펴 보면 바른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다.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 용어인 ‘사제(priest)’를 이어 받았는데, 이 말에는 직업적인 교회 직위라는 언외(言外)의 뜻이 담겨있다. 반면에 청교도들은 ‘사역자(minister)’, ‘목사(pastor)’라는 호칭을 택했다.⁹⁷ 사역자란 그들이 하는 일, 곧 남들을 돌아보고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목사’ 또는 ‘목자’ 역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목자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대강 살펴보다라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직분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며, 선한 양심을 북돋우고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며, 상담하는 일을 수행하는 직분 말이다. 그러나 이 직무 중 어떤 것도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청교도들은 한목소리로 목사의 주임무가 설교라고 말했던 것이다.⁹⁸

리차드 백스터가 목회 했던 시기는 목회가 용이한 시기가 아니었다. 종교와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교적요구가 거세던 시기였고, 영국에서의 종교적 새로운 시도가 순수함과 청결함을 추구했던 청교도였다. 리차드 백스터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앞장섰던 청교도 정신에 투철한

97. 리랜드 라이큰, 200.

98. 브루스 비클, 「복음과 청교도 설교」 원광연 역 (서울: 청교도 신앙사, 2003), 75.

목회자였으며, 청교도를 대변하는 목회자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청교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앞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백스터의 목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IV.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관(牧會觀)

리차드 백스터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목회자였으며, 성경의 권위와 원리를 잘 실천하고 적용한 목회자였다. 이러한 백스터의 목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백스터의 목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자세와 열정으로 목회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배경

리차드 백스터는 청교도의 대표적인 설교가로서 많은 저서와 사상을 후대에 남겼다. 목회자요 설교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대단하다. 그 역사는 그가 사역한 키더민스터에서의 목회경험을 담은 『참목자상』(*The Reformed Pastor*)에 잘 나타나있다. 백스터는 철저히 실천하는 목회자로서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에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어릴 때의 교회에 대한 그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설교가 적었다. 내가 태어난 마을에는 4명의 목회자가 있었고 모두가 무식했다. 그 중에 2명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는 한 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약 80세 정도의 노인이었으며 결코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가져온 공동기도서(Common Prayer)를 읽었고 시편이나 다른 성경의 낭독은 1년에 또

는 2년에 한번 정도 읽었다(왜냐하면 성직자들이 잘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의 대리인들(모든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연극인, 그리고 능란한 노름꾼, 또는 그 동료들)을 두어 의식을 집행하게 하고 그의 장소 중하나를 공급해 주었다. 그들은 공동기도서를 주일과 거룩한 날에 읽고 학교에서 가르치며 평일에는 술고래처럼 마시고, 그들이 취했을 때 어린아이들을 채찍질하였다. 그들이 내어렸을 때의 선생들의 모습이다(두 명을 제외하고). 우리의 주변 수마일 안에 12명 가량의 교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8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무지한 낭독자와 그들 대부분의 삶은 악평이 자자했다.⁹⁹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들이 그의 삶과 목회 속에서 진리(앎)와 실천 사이에서 실천에 관심을 갖게되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그의 건강문제이다. 그는 연약한 건강으로 인해 실천신학(실존적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는 실천적인 방법일 때 가장 잘 학습된다고 보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가장 성경적인 신학자는 가장 실천적인(실존적인) 신학자이며, 가장 실천적인 신학자가 가장 성경적인 신학자로 생각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한 귀로는 다가오는 죽음의 부르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다른 한 귀로는 의심에 찬 양심의 의문들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매우 지혜롭고 이렇게 나의 유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나는 유익

99. N. H. Keeble, ed. *The Autobiography of Richard Baxter*, 3-4. 김현애, “청교도의 거장 리처드 백스터의 설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 대학원, 2000), 42. 재인용

한 공부 방법을 발견했다. 그로 인해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었고 필요한 한 가지 일에 가장 많이 유의하게 되었고 먼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하게 되었다. 나는 모든 다른 학문들을 택하여 추구하였으나 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학은 나의 다른 학문들과 함께 수행되었으나 언제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나의 나쁜 건강은 내가 실천신학을 첫 번째로 연구하게 된 원인이었다. 나는 실천적인 순서에 따라 많은 실천적인 책들을 읽고 연구하였고, 나의 영혼을 채우고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신학 서적을 읽기 앞서 “어사인”(Ursine)과 “아메시우스”(Amesius)와 같은 우리 영어의 실제적인 논문들을 많이 읽었다.¹⁰⁰

그는 목회기간 동안에도 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는 늑막염, 신장염과 같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36명의 의사들로부터 충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수도 없이 약을 사용했다. 그것들 대부분이 치료를 위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스물 몇 번쯤 그는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무덤의 문 바로 직전까지 갔다. 그리고 다시 느리고 어려운 회복의 길고 고통스러운 상승을 통해서 생명으로 되돌아왔다.¹⁰¹

셋째, 국교도에서 비국교도로 전향한 점이다. 그는 국교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깊이 고민했다. 국교도로서 그를 괴롭혔던 것은 교회의 권징 부재, 술 주정꾼들의 성찬 참여 허용, 무릎을 꿇지 않는 기도의 허용, 그리고 세례 집례시에 십자가상의 사용(형상숭배)들이었다. 그의 신앙적 전향은 그로 하여금 줄곧 종교전쟁의 중심에 서있도록 만들어 국교도의 표적이 되

100. 제임스 페커. 87-88.

101. John Brown, *Puritan Preaching in England* (New York: University Press, 1900), 167-68. 김현애, 43. 재인용

었다. 그와 같은 정치 현실 속에서 그의 신학 사상의 형성은 논쟁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있다.¹⁰²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배경은 매우 불우했다. 어릴 때는 부정적인 교회 관과 목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다. 그리고 국교도와 비국교도와의 선택의 갈등 속에 있었다. 그러나 백스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목회는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 청교도의 신앙과 목회를 택하게 된 것이다.

B.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의 동기와 대상

백스터는 목회를 사도행전 20: 28(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에 근거해 “양떼를 돌보는 일”¹⁰³로 규정한다. 이것은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를 왜 하는가? 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는 주(主)를 위해 부름 받은 자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은 자신의 소명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고대의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깨지기 쉬운 유리잔에 그의 피 한 스푼을 넣어 내게 주며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관하느라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

102. 황성철,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신학 연구,” 『신학지남』 (1999, 여름): 183.

103. 리차드 백스터, 「참목자상」, 55.

겠으며 그 잔을 얼마나 소중히 아끼겠는가!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사람들을 맡기셨으니 나는 그들을 주의 깊게 보살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목사의 태만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목사들이 태만의 죄를 범하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다. 목사가 태만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비싼 피 값을 치르고 사신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¹⁰⁴

백스터는 자신을 종으로 인식해 주인이 맡겨준 양떼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자(messenger)로서¹⁰⁵ 그 일을 누구보다도 큰 영광으로 알았다. 따라서 그는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회심시켜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고 그들의 죄가 정함 받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깊이 인식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중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그들을 사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일곱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회심하도록 특별한 태도(사랑)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죽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과 같은 우선적인 대상이다(사랑의 관심). 둘째, 여러 가지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찾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해 주는 일이다(목회상담). 셋째, 회심한 사람들을 위해 연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상태에 따라 우리의 양떼 중에 비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죄(세속적인 마음, 오만, 정욕, 외교집, 기

104. Ibid., 154.

105. Ibid., 149.

타 좋지 못한 열정)에 빠진 사람, 약해져 가는 신도들,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구분해 돌보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며 가장 힘든 일이다(회심자 돌봄). 넷째, 각 가정들이 질서 있게 다스려 의무를 수행하는지 지도하는 일이다(가정지도). 다섯째, 병자들을 심방하여 좀더 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다. 죽어 가는 사람에게 기력이 쇠하기 전에 즉시 가야 한다.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알려주어 회심하도록 도와야 한다. 만일 병석에서 일어나면 병석에서의 약속과 결심을 상기시켜야 한다(환자지도). 여섯째, 무례하고 완고한 사람들을 나무라고 훈계하는 일이다(훈계). 일곱째,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징계하는 일이다. 개인적인 견책 후에도 죄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대중 앞에서 견책하여 다시 회개하도록 권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견책과 더불어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회개한 사람이 교회에서 유대관계를 갖도록 허락하고 이 모든 시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출교 시켜야 한다(징계).¹⁰⁶

백스터는 목회의 동기와 대상(유·무형의)에 대하여 세밀하게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내용 있는 목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C. 목회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목회자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을 맡은 목회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담당해야 하는지 말한다.

첫째,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우리가 지닌 죄 중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분명한 죄는 교만이다. 교만에 대해 백스터는 이렇게 말한

106. Ibid., 109-27.

다.

교만은 인간이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나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추구하고 스스로를 부인해야 할 때, 그들 자신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선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마땅히 물어보아야 할 때에, 교만은 그들이 학식 있고 유능한 설교자로서 생각되어지려면 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까 하는 것에 대해 묻게 만든다.¹⁰⁷

이어서 백스터는 목회자가 사단이 주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있을 때 경험 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실질적인 목회적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설교가 행해진 후에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구원을 위해 영혼을 설득시켰는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칭송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힘쓰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신도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였는지 몰래 사람들에게 묻고 얼마나 그들의 칭찬을 얻었는지 전해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를 연약한 보통사람으로 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되면, 그는 불쾌히 생각하고는 그가 기대했던 상을 놓쳐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¹⁰⁸

백스터는 지적하기를 이러한 교만은 그 자체가 모순된 것이며 성직자들

107. Ibid., 163.

108. Ibid., 163-64.

이 스스로도 결함을 의식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겸손이라는 이름을 빌려쓰고 있다고 한다. 교만은 우리의 본성 속에 가장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이며 어느 누구도 영혼으로부터 그것을 근절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많은 목사들이 너무 오만한 나머지 배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목회에 매우 서투르다. 따라서 겸손은 목사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줄 것이라며¹⁰⁹ 겸손을 강조했다.

둘째, 백스터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목회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세속적인 일과 돈에 대해 초연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행되어야만 한다. 목회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라 해도 우리는 그 일을 그릇 행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만다.

목회사역을 다른 평범한 일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생계를 위한 방편처럼 여기는 사람은 목회가 일 자체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선택한 일이 그리 좋은 사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부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특히 목사는 평신도의 두 배나 되는 자기부정을 해야한다. 이는 자기부정이 없이는 단 한시간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깨닫고 있는 바로는, 어떤 사람이 논쟁에 끼어 들어 해답을 구할 때 돈이란 것이 너무 강하게 적용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주장할

109. Ibid., 135. 리차드 백스터는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이겠으나 무식한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더 낫다.”는 제롬(Jerome)에게 했던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겸손을 목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수 있으며, 탐욕의 위험에 대해서 긴 연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다음의 말 이외에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시몬 마구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죽을 죄였다면, 돈을 위해 인간의 영혼을 팔고 그의 은혜와 그의 소명을 판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¹¹⁰

셋째, 목회는 열성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신중하고도 질서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열심을 갖고 목회에 임해야 하는,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손에 어떤 책임이 놓여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만일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의 세력을 떨칠 것이고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며 그들의 피 값이 내 손에 붙여질 것이다. 내가 노력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나는 내가 피하려 한 것의 1,000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열심을 다하면 그것은 앞날의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¹¹¹

넷째, 목회에 모든 과정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필요한 진리에 중점을 두고 그 밖의 것들에는 주안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신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설교자는 종종 같은 주제에 관하여 설교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는 같은 진리를 은혜스럽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도록 해야하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한 것인 양 꾸미거나 불필요한 것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110. Ibid., 128, 181.

111. Ibid., 129-30.

한다.¹¹²

다섯째, 신도들에 대한 부드러운 사랑으로 인내를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신도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그의 아이들을 향하여 느끼는 정과 같은 것을 느껴야 한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도 우리의 사랑보다 크지 아니 할 만큼 우리는 신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신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잡으실 때까지 모진 산고를 견디어 내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욕설과 모욕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런 지 누가 알겠는가?¹¹³

여섯째,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설교에는 영적인 어조가 있어 영적인 청중들은 그것을 분별해내고 즐길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설교에는 이러한 성스러움이 부족하여 심지어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천상의 진리에 관한 우리의 증거와 설명은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또한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¹¹⁴

일곱 번째, 번창하기를 원하면 성공에의 간절한 바램과 기대를 계속적으

112. Ibid., 132.

113. Ibid., 136-38.

114. Ibid., 140.

로 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청중들의 회심과 교화를 보게 되는 것을 갈망하지 아니하며 희망을 품으면서 연구하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만큼 어떤 사람의 일을 그렇게 많이 축복해주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¹¹⁵

여덟 번째,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우리 사이의 화합과 친교에 힘써 우리가 감독하는 교회들이 조화와 평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께로 가서 빛과 생명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고쳐주시고 도와달라고 간구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게 된다...또한 우리는 형제들과 싸우는 대신에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서로 뭉쳐야한다. 모든 목사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고 사귀고 편지를 교환하며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해야한다. 사소한 판단상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교회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일치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내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서로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규칙을 만들어 오해를 피하고 상호계발을 염두에 두고 사랑과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한마음으로 수행해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추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¹¹⁶

D. 리처드 백스터의 목회의 방법

115. Ibid., 141.

116. Ibid., 143-45.

대부분의 청교도 목사들은 목회활동을 4가지로 즉 교리문답, 상담, 위로, 특별한 개인예배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기 등으로 구분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백스터였다.¹¹⁷ 백스터의 목회의 방법들을 위의 구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공적인 설교사역

백스터는 말씀 선포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원리적이고도 고정된 수단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으로¹¹⁸ 간주하였다. 따라서 백스터는 설교가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영혼의 교제로 설교자를 통해 충만한 증거의 빛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 거룩한 사랑으로 회심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설교를 중요시 여겼다. 그러므로 설교시 설교자가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이 차가와 질 때에는 나의 설교도 차가와 진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나의 설교도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나의 설교가 차가와 질 때에는 신도들 역시 차가와 지는 것을 가장 열심히 설교를 듣는 신도들에게서 종종 발견하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가 차가와 진 후에 신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는 나의 설교와 같이 냉랭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유모들이다. ...목사는 회중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마음

117. 피터 루이스, 121.

118. Ibid., 69-70.

속에 특별한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때에 목사의 마음이 싸늘하다면 그가 어떻게 청중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때에는 활력을 구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¹¹⁹

백스터는 설교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며 설교자의 철저한 준비 즉 성령의 은혜에 머물러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영혼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인 설교의 전달을 위해 설교의 전달 기술의 터득이 중요함을 밝히며 특히 설교의 억양과 어조에 성공여부가 달려있음을 역설한다.

2). 교리문답과 상담목회

백스터는 공적인 설교에서 보다 심방에서 성공의 외적인 표적들을 더 많이 발견했다고 한다. 실제로 키더민스터에서의 목회적 성과는 그의 심방을 통한 교리교육과 상담목회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보도록 하자.

우리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에 전념하여 일주일에 십 오륙 가구를 심방하며 교구를 돌아다녀 일년이면 팔백여 가구를 심방합니다. 우리의 방문을 거절한 가구는 이제껏 한 가구도 없었으며 단지 몇몇 사람들만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우리의 방문을 연기했을 뿐입니다.¹²⁰

또한 어떤 순서로 심방하였는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

119. 리처드 백스터, 「참목자상」, 67, 69.

120. Ibid., 49.

한다.

교리 문답서를 전해줄 때에 교구내의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여 사무원이 일주일 전쯤 각 가정을 찾아가 어느 날 몇 시에 우리들이 방문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들었습니다(한 가정은 8시에, 다음가정은 9시에, 그 다음 가정은 10시에, 등등). 그리고 나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가족은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¹²¹

백스터는 일주일에 한번 밖에 듣지 못하는 설교대신에 개인적인 교리교육이나 상담목회는 그의 키터민스터의 목회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요리문답이나 상담을 통한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얻은 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대부분의 고통을 겪도록 하며, 그들이 그들의 신도들을 살피고 그들 대부분이 마치 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무지하고 분별 없는 자들이 아닌지 시험해 보도록 해 보라.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평이하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게 말을 하려고 연구하였다.…나는 8년~10년 동안 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그들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을 보이고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있으며 육에 따라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신뢰가 그들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경험상으로, 오랫동안 무익한 청중들이었던 몇몇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이 10년 동안 설교를

121. Ibid.

공적으로 들었던 것보다도 반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설교를 통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알고 있기로도 복음을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에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는 것이다.¹²²

백스터는 이 일을 위해 특별히 각 교구 안에 따로 ‘교리문답 전담자’를 정해 놓을 것을 의회 의원(The Common Wealth)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¹²³ 왜냐하면 이 교리문답과 상담이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대단히 소망스러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이 방법에 전력을 다한다. 실제로 그의 책 『참된 목자』에서 많은 부분을 이 방법과 그 활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역을 위해 그는 꼬박 이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교리교습과 가르침¹²⁴ 을 준비했다.

3). 권징¹²⁵ 의 시행

백스터는 목회자들이 권징을 수행하는데 있어 태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권징에 의해 그의 신도들을 지도하지 않는 태만한 목사는 설교하지 않는 태만한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추방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권징이 설교를 하는 목사의 임무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

122. Ibid., 31-32.

123. 피터 루이스, 122.

124. 리차드 백스터, 「참목자상」, 222.

125. 개인적으로 꾸짖거나 훈계하고, 또는 공적으로 회심하도록 권고하며,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쫓아내어 버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다.

이다.¹²⁶ 그렇다면 교회에서 권징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의 말을 들어보자.

오늘날 영국의 목사들이,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권징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내가 알 수 있는 한, 그 큰 이유는 바로, “권징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초래하게 될 것 같은 임무의 어려움과 곤란 그리고 고통인 것이다. 우리는 공적으로 어떤 죄인을 비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죄인은 호통을 칠 수 있고, 우리에게 심한 적의를 품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매우 소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회심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출교 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대해 격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교구 내에서의 완고한 마음을 보이는 죄인들을 처리한다면, 그 교구 내에서는 어떤 자도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우리의 생활은 편안함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가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있을 때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더 이상 그 의무를 행하기를 그치고, 그 때문에 뒤이어오는 마음의 상함은 유익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이다.”¹²⁷

백스터는 권징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확신하고 있으며¹²⁸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의 유익이 없을 때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126. 리처드 백스터, 「참목자상」, 206.

127. Ibid., 203-204.

128. Ibid., 205.

4) 가정목회

그 당시 청교도들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백스터 역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교의 생명과 교회와 이 나라의 번영과 영광은 각 가정의 관리와 가정마다의 의무의 수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각 가정들을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모든 일을 망치고 말 것¹²⁹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가정이 모든 사회의 기초임을 알고 또한 신도들의 복지와 개혁을 원한다면 각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 방법들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가정마다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사람들이 가장 한가할 때 종종 그들을 심방하여 가정에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지 혹은 가족들과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라. 이 같은 일은 소홀히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기회를 보아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 또한 앞으로 약속을 그들로부터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만일 무지와 연습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익혀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설득하는 한편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의 형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충고한다. 넷째, 각 가정마다 성경 이외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다. 만일 그러한 책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책을 몇 권 사도록 설득하라. 다섯째, 주일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며 가정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도하라. 각 가정의 가장을 설득하여 주일날 저녁마다 아이들과 시종들이 그 앞에서 교리문답을 외우고 주일 예배시간에 들은

129. Ibid., 115.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라. 이토록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해서
는 안 된다. 가정에서의 변화가 없이 전반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¹³⁰

위와 같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을 돌보는 일 뿐만 아니
라 그 한 영혼의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는 가정의 영적 관리를 통하여 나아
가 나라와 사회의 개혁까지를 염두에 둔 그의 열정과 깊은 안목이 큰 교훈
을 갖게 한다.

E. 리차드 벅스터의 설교

1) 설교의 유형

청교도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금생과 내생에 영향을 주는바 믿음을,
추론을 통해서 격려하고 세우는 방도였다. 목사는 누구든지 자기의 신조를
통해서, 교리와 실천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또한 성경 말씀을 해명하는 일
에 신실하게 임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에
충실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청교도 설교는 반드시 확실한 성경 본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아주 긴 설교라도 반드시 나름대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청교도 설교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곧, 가르침
(Doctrine), 논증(Reason), 사용(Use)이 그것이었다. 청교도 설교를 좀더 달

130. Ibid., 116-117.

리 표현한다면, 선포(Declaration), 해명(Explanation), 그리고 적용(Application)이라 할 수 있다.¹³¹

백스터의 설교는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하였다. 그 예로 마태복음 22 : 5의 “그리스도와 구원을 경시함”에서는 설교의 목적을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음을 밝히는 선포 적인 설교를 하였으며, 에스겔 36 : 31의 “회개에 대한 설교”¹³² 에서와 “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르심” 등에서 이 선포적 설교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따른 설교를 하므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강권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훈적인 설교를 한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확실한 회심을 위한 지시와 설득”, “연약하고 병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시”, “자기부정”,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발견자의 헛된 신앙”, “기독교 훈령집” 등¹³³ 이 있다. 또한 백스터는 목사요, 동시에 의사(a lay physician)로서 치유 적인 설교를 남겼다. 그의 이러한 의도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상당한 두께의 책인 『신앙과 의학에 의한 우울증과 과도한 슬픔에 대한 치료책』(*The cure of Melancholy and Overmuch Sorrow by Faith and Physics*)이라는 제목으로 크리플게이트 설교 집에 잘 요약되어 있다. 백스터 목사의 설교는 이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선포 적인 설교를 회심한 신도에게는 교훈적이며, 치유 적인 설교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청교도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설교를 했던 것이다.

131. 브루스 비클, 38-41.

132. Fant & Pison, 「세계 명설교 대전집」, 383-441. 김현애, 72. 재인용

133. 제임스 팩커, 82-83.

2). 설교의 준비

설교를 준비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자 자신의 마음 준비라는¹³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문과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정열에 불타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할 수 있다. 백스터 역시 설교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설교단 위에 올라가야 함을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임무를 더 잘 수행해나갈 만한 적합한 자로서 자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연구해야 하는 일을 즐기지 않는다. 때로는 단정한 시간에 불과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억지로 견뎌내야 하는 달갑지 않은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기뻐한다. 또한 목사들은 그들이 읽어야 할 책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소하다고 생각되는 출판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의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조금밖에 연구를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중에도 우리는 너무나 태만하며, 단지 몇 가지 드러난 진리만을 수집하며, 인간의 양심과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표현들을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절실히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

134. 제임스 브래가, 「설교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8-9.

해서 연구해야만 한다. …한 무리의 죽은 자들과 목사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분기시키고 깨울법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졸립게 말을 하고 나직이 말하기에 잠을 자는 죄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를 못한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들의 목소리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그들 자신들도 진지한 말로 스스로를 분기시키지도 못하는 것이다. 진지하지 않으면 목소리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¹³⁵

백스터는 설교자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설교는 그 말씀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의 선택을 하게 하는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던 백스터는 공적인 설교로써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과 삶을 지켜 갈 수 없음을 깨닫고는 교리문답과 상담목회를 강조했는데 이 때문에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늘 아쉬워했다. 그렇다고 백스터가 공적예배의 설교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설교에 쏟은 정열은 대단했다. 이런 그의 목회적 결실은 키더민스터의 목회에서 변화된 도시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다.

3) 설교에 대한 열정과 기술

그의 설교는 탁월하였다. 그의 훌륭한 설교는 강한 열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탁월한 설득력과 긴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상반되는 개념들을 열거함으로 설교를 진행시켰다. 그의 이러한 설득적인 설교의 압도적인 열정은 잃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135.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174-75.

그의 설교에 대한 강한 열정은 그의 명언에서 그 정신을 잘 보여준다. “나는 다시 설교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다. 다시 말해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죽어 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설교를 했다.”(I preach as never sure to preach again, and as a dying man to dying men)¹³⁶ 또한 그는 설교에 대한 강한 열정과 기술(구성)이 필요함을 이렇게 말한다.

죄인들은 깨우치거나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용한 설교자는 즐고있는 죄인들을 깨닫게 하기가 힘들다. …그러기에 사랑과 열정을 가지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멸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설교하는 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 또한 같이 나타나야 한다. 만일 우리가 “네 손이 할 일을 발견하게 되거든 네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 때에 분명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설교를 하는 우리의 직무에 있어서의 마땅히 힘을 다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목사들은 수적 얼마나 적은가? …비록 내가 이야기 투에 있어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제안한다고 해도(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의 열정이 경멸받게 될 것임으로)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지함을 가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이르러서 큰 목소리가 요구될 때는 최소한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야 한다. 어조를 높이고 기운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듣기 좋은 치렛말을 하고 번지르르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설교를 듣게되는 대부분의 청중들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발음과 어조이다. 아무리 훌륭한 주제일지라도 그것이 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특별히 짐짓 꾸미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들 중 누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할 수 있는 친절함을 다하여 친근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할 중요

136. I. D. E. 토마스 편찬 「청교도 명언집」 이남종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164.

한 일은 그들 편에서 충분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 앞에 분명하게 서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증거로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강렬한 욕구에 대응하고, 우리의 이성과 훈계로 그들의 모든 헛된 반대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모두가 우리들 앞에서 기세를 꺾고 그들이 진리의 힘에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¹³⁷

이러한 설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그의 모든 설교와 목회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를 가리켜 ‘자신의 심령에 설교한 사람’¹³⁸ 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F.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관의 특징

1) 성찰 -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긴밀히 해야한다는 것이다.¹³⁹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고, 또 세상 적인 기준으로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보다 신령한 기준의 자격을 통하여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며¹⁴⁰, 또 그

137.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175-77.

138. 피터 루이스, 78.

139.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The Reformed Pastor」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5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책 「참된 목자」에서 1장에서 3장까지를 기술하고있는데 특별히 1장의 1, 2부를 통하여 자아성찰(自我省察)에 대하여 중요하게 논하고 있다.

140. 곽안연,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7.

직분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목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으로 목회 사역에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더러 그런 경우들을 보게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이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 했다가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목사와 사역 자들을 향하여 백스터는 사도 바울의 말씀(고전 3: 22 ~ 23절, 고전 4: 1절, 고전 9: 27절)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목사로서의 지녀야 할 것을 1장 1부 1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주의 할 점을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목회자의 심령 안에서 먼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양복장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싼 옷을 만들면서 자기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많은 요리사들이 가장 값비싼 요리를 손님에게 내놓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음식의 맛도 보지 못하고 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설교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의롭고 성화 되어 주님의 일에 신실한 사람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청중에게 그렇게 되도록 설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바를 우리가 믿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한 메시아를 성심껏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위대한 목적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¹⁴¹

하나님 체험이 없고, 거듭나지 아니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설교자가 되어버린 자가 많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문제이겠지만 더욱이 그가 목사요, 사명자라면 그가 목회 하는 양떼들과 그 교회는 큰 불행이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백스터는 교회에 고통과 비통함을 주는 사람과, 영혼을 죽이는 고문자 에게는 주의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은혜의 역사를 소유했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가 생활과 행동에서 유지되도록 하라. 이에 대해서도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차가와 질 때에는 나의 설교도 차가와 진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나의 설교도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나의 설교가 차가와 질 때에는 신도들 역시 차가와 지는 것을 가장 열심히 설교를 듣는 신도들에게서 종종 발견하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가 차가와 진 후에 신도들이 하는 기도를 돌아보면 그 기도는 나의 설교와 같이 냉랭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유모들이다¹⁴².

그러므로 목회자는 은혜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여 그것을 설교와 사역을 통하여 신도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목회자의 행동과 가르치는 교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목회자는 혀로 말한 것을 생활태도로 인하여 망쳐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 스스로 모순되어 혀로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한 두시간 쌓아올린 것들을 한 주일 내내 손으로 부수어 버린다면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141.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58, 61.

142. Ibid., 67.

하는 사역에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행의 불일치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한담에 불과하며 설교를 하는 것이 단순한 지껄임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유인 것이다. 자기가 진정 말하고자 한 바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오만하고 통명스럽고 거만한 말 한마디와 필요 없는 논쟁, 그리고 탐욕적인 행동은 설교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제껏 가꾸어 온 열매를 말려 죽이고 말 것이다.¹⁴³

자기가 한 설교와 생활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은 일부 목사들이 범하는 뚜렷한 잘못이다. 그런 목사들은 설교를 정확히 하려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설교한 대로 정확히 살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기도 한다. 우리는 허뿐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매일 같이 연구하는 자세와 생활이 필요하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설교가 나쁘다고 설교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 자신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를 헐뜯지 말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굴복시키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죄에 머리 숙여 스스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드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죄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죄를 나무라는 편이 훨씬 더 쉬운 것이다.¹⁴⁴

다섯째,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43. Ibid., 70.

144. Ibid., 76.

사람들은 자기의 태만으로 감히 성령을 소멸하면서도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려 든다. 이 얼마나 당치 않고 부끄러우며 부자연스러운 행동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다. 우리는 청중들을 일깨워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며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때를 놓치지 말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의논하고 실행하도록 하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이 증가 될 것이다. 우리는 태만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¹⁴⁵

이처럼 백스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자에게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다.

2) 성장(부흥)

리차드 백스터의 키더민스터의 사역과 그의 말씀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성장과 부흥이다. 그의 사역의 요점은 ‘개혁(Reform)’이었는데, 그의 개혁의 의미는 ‘부흥(revival)’을 추구하는 진술적 표현이었다.¹⁴⁶ 그가 1656년 출판했던 목회에 대한 고전인 『개혁된 목사』(*The Reformed Pastor*)를 출판 할 때도 ‘개혁된’이란 말로 그가 의미했던 바는 교리에 있어 칼빈주의적 이라는 것이 아니라, 활력과 열심과 목적에 있어서 갱신되었다는 의미였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청교도 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17세기에 영국에

145. Ibid., 80-81.

146. 제임스 패커, 42-43.

일련의 부흥의 운동이 있었는데 데드햄의 로저스(Rogers)와 키더민스터의 백스터의 경우가 부흥에 해당한다¹⁴⁷ 고 보았다.

『참된 목자』 서문에 보면 “교회의 번영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목사들에게 달려있다”¹⁴⁸ 는 말을 통해서도 그의 정신과 목회자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백스터는 “하나님께서서는 목사들을 개혁시킬 수 있고 그들의 의무를 열을 내어 신실하게 하도록 만드시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개혁되어질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목사들이 성장하거나 타락하는 것에 따라(세상의 부나 세속적인 위엄이 아닌) 성장하고 타락하며, 목사들의 지식에 있어서나 그들의 임무에 대한 열심이나 그 능력에 좌우된다”고 백스터는 기록했다. 이런 의미에서 백스터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목회사역의 “성장”이었다.¹⁴⁹ 이제 백스터의 글을 통해서 그의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자.

이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람들의 불멸의 영혼을 위하여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줄 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 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연합하십시오. 그러하면 더 쉽게 교구민들이 여러분께 복종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실지로 개혁되어야 하는 일임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의 이익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에 있어서의 성공을 바라는 열망으로 모든 경건한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제의하는 바이다. ...추수할 것은 많은 데 일손은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과 추수를

147. 마틴 로이드 존스, 20.

148.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36.

149. Ibid., 26.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 인간의 영혼은 귀중한 것이며 죄인이 겪은 고통은 큰 것이다. 그들이 곧 겪게 될 영원한 고통은 아주 심한 것이다. 천국의 기쁨은 상상할 수도 없으리 만큼 큰 것이고 신실한 목사가 누리게 될 평안함도 적은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은 우리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¹⁵⁰

위의 내용은 직접적인 성장과 부흥의 표현이 담긴 내용들이지만 백스터의 사역과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장과 부흥을 염두에 둔 것임이 틀림없다.

3) 양육과 교육

공적인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키더민스터의 백스터의 경우에는 신도들이 일주일에 한번밖에 설교를 접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신도들의 신앙교육과 양육의 면으로 보아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많았던 모양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양육에 대하여 고심하던 백스터는 개인적인 심방과 상담을 통하여 교리교육에 강조 점을 두어 교육과 양육의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본받을 만한 사역을 펼쳤다.

나는 경험을 통하여 오랫동안 헛되이 설교를 들어온 몇몇 무식한 사람들이 30분 동안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10년 동안 공적인 설교에서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가책을 받는 것을 보아왔다. 복음을 공적으로 전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150. Ibid., 48, 65, 245.

것이므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보통 개개의 죄인에게 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공적인 설교에서는 그들의 우둔함에 수준을 맞추어 소박한 표현과 반박을 할 수 없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공적인 설교에서는 우리의 설교가 길고 신도들의 이해력과 기억력이 미칠 수 없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한다. 그들이 우리의 설교를 따라올 수 없는데도 우리의 말은 계속 잇달아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듣는 이들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따라올 수 있다. 우리가 묻고 그들이 대답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해하였으므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51

어떻게 하던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바르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백스터의 찾아가는 목회는 목회자적 사랑의 자세와 목회적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요구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키더민스터에서의 심방과 교리교육을 통한 목회의 결과에 대하여 백스터의 말을 들어 보도록 하자.

당시의 키더민스터를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키더민스터시는 800여의 가호와 2000여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무지하고 무례하며 흥청거리는 사람들이었으나 이 모든 것이 백스터가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극적인 변화를 갖게되었다. “내가 처음 나의 임무를 시작하였을 때, 나는 겸손하고 개심한, 그리고 회심한 모든 이들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회심 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그러면서도 많은 가정이나 상당수의 신도들에게 특별한

151. Ibid., 238.

관심을 기울일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으며…점차로 증가하고 성장하는 신도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었다.” “회중들은 항상 가득 찼으므로(교회는 1000여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건물을 부득이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에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그들로부터 떠난 지가 약 6년 가량이 되며, 그들이 그동안 설교 단에서 이루어지는 중상과 비방, 위협, 투옥, 유혹하는 말과 그들을 피이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공격받고 있었다고는 해도, 그들은 아직도 확고히 서있으며 그들의 고결함을 유지하고 있다.¹⁵²

심방과 교리교육은 키더민스터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심방과 교리교육을 통한 성도들의 훈련은 극심한 혼란기요 혼동의 시기를 살면서도 복음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였다. 백스터의 키더민스터에서의 목회적 열매는 심방과 교리교육을 통한 그의 사역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4) 실천(말씀의 실천)

백스터는 어린 시절 자신이 태어났던 곳의 교회와, 그 당시 목회자들의 삶이 술주정뱅이와 무지한 삶으로 타인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생활이었음이 그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 백스터는 목회자의 자아성찰을 강조한 후에 목회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또한 강조했다.

백스터는 신앙의 실천을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

152. Ibid., 24-25.

한 삶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고 다만 완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예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¹⁵³ 성도들의 생활이 개혁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권면 하였다. “자신이 은혜가운데 있다고 만족하지 말라. 당신의 은혜가 적극적이고 생동적인 실천 속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신이 공부하고 준비한 설교들을 스스로에게 먼저 설교하라.”¹⁵⁴ 설교자의 거룩한 삶과 그의 설교를 듣는 양떼들 사이의 밀착된 관계는 백스터의 다음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혀로 말한 것을 생활태도로 인하여 망쳐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만일 우리 스스로 모순되어 혀로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한 두시간 쌓아올린 것들을 한 주일 내내 손으로 부수어 버린다면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하는 사역에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행의 불일치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한담에 불과하며 설교를 하는 것이 단순한 지껄임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유인 것이다. 자기가 진정 말하고자 한 바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오만하고 투명스럽고 거만한 말 한마디와 필요 없는 논쟁, 그리고 탐욕적인 행동은 설교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제껏 가꾸어온 열매를 말려 죽이고 말 것이다...자기가 한 설교와 생활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은 일부 목사들이 범하는 뚜렷한 잘못이다. 그런 목사들은 설교를 정확히 하려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설교한 대로 정확히 살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기도 한다.¹⁵⁵

153.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160.

155. 에롤 헬스, 233.

156.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69, 70, 71.

G. 리차드 백스터의 평가

리차드 백스터가 설교와 저서, 그리고 목회를 통하여 끼친 영향은 청교도들에게 뿐 아니라 후대의 많은 신실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백스터를 어거스틴, 루터, 번연, 웨슬리, 피니 등과 그 위치를 함께 평가를 한다.¹⁵⁶ 백스터를 한 편에서만 평가하기가 제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먼저 그의 신앙을 형성하는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백스터의 목회와 신학이 담겨있는 「참된 목자(*The Reformed Pastor*)」에서 그가 주장한 ‘참된 목자’의 기준과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평가하도록 한다.

리차드 백스터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사역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백스터의 목회는 합리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신앙과 신학의 합리성을 지키려고 백스터는 고민했고, 이로 인해 국교도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청교도로의 전향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의 이러한 경향은 줄곧 종교전쟁의 중심에 서 있도록 만들었으며 국교도의 표적이 되게 되었다.

둘째로는 백스터는 철저히 실천하는 목회자였다. 하나님의 진리는 실천적인 방법일 때 가장 잘 학습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경향은 그의 삶과 신앙 뿐 아니라 설교와 교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¹⁵⁷

156. 제임스 패커, 419.

157. Ibid., 87-88. 실천적인 방법이란 -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전적인 믿음으로의 순종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바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

셋째로 목회의 전문화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교도 목회자들의 무능하고 열심 없는 모습과 상황에 대하여 ‘개혁된(Reformed)’ - 그 뜻은 목회의 실제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⁵⁸ -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목회사역의 전문화와 성장을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백스터는 그의 저서 「참된 목자(*The Reformed Pastor*)」에서 참된 목자상(牧者像)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목자란?

a) 겸손해야 한다.

b)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목회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세속적인 일과 돈에 초연해야 한다.

c) 열심을 갖고 목회에 임해야 한다.

d) 오직 진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 신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해야 한다.

f)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해야 한다.

g) 성공(번창)에 대한 간절한 바램과 기대를 계속 품어야 한다.

h) 교회들에 조화와 평화에 힘써야 한다.¹⁵⁹고 그 기준을 주장한다.

a)에서 d)까지는 목회자 자신에게 요구되는 기준이요, e)에서 h)까지는 목회사역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a)부터 h)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며, 경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고전 4:20)이기 때문이다.

158. 리처드 백스터, 「참된 목자」, 26.

159. Ibid., 128~ 143.

위의 기준과 주장이 부정하고 부패했으며, 무능했던 국교도 목회자들과 그 당시 목회자들을 깨어나게 했다.

백스터의 참된 목자상(牧者像)으로의 기준은 백스터 당시나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변함 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첫째, 목사가 누구인가? 을 깨닫게 하고 - 정의(定意). 둘째, 목사가 추구해야 할 자세를 깨닫게 하며 - 역할(役割). 셋째,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한다. - 기능(技能).

목회자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직업과 직위 보다 그 기준이 엄격하고,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위의 기준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 자신들조차 목회자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목사들의 기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백스터는 그의 책을 통하여 목사의 정의(定意)와 역할(役割) 그리고 기능(技能) 목표(目標)등을 통전적으로 다루면서 우리에게 목사로서의 자성(自省)과 목회의 성장을 돕고 있다.

리차드 백스터는 참된 목자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그 기준에 맞추어 실천함으로써 그의 주장이 이론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지켜야 할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에 대한 기준은 목회자들의 원형(原形)이 됨을 알 수 있다.

본인은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의 기준이 모든 목회자들과 목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마음에 심고, 목회로 실천할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평가를 대신하려 한다.

V. 결 론

리차드 백스터의 삶과 신앙과 목회는 그의 저서 「참된 목자 (*The Reformed Pastor*)」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의 삶과 신앙과 목회는 서로 통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온전한 목회자(牧會者) 상(像)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백스터의 삶과 신앙과 목회는 성경 중심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었다.

리차드 백스터의 삶은 성경 중심적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백스터는 지주 계급의 상류층 자작농의 외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친의 재산 탕진으로 인해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야 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후에 집안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제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하였다. 백스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독학을 결심하고 대륙의 종교 지도자들이 쓴 책을 구입하여 연구함으로써 종교개혁 사상을 배웠으며, 영국 청교도들의 서적을 구해 읽음으로써 청교도의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과 신학사상을 익혔다. 비록 백스터는 예리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독학한 사람들의 약점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키우는 시기였던 것이다.

리차드 백스터의 사상을 밑받침하고 있는 것은 청교도 사상이다. 이 청교도 사상의 핵심도 성경 중심으로써 성경 중심이 백스터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가 성경 적이고 칼빈주의적 신조를 공유했으며. 둘째, 영국 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의 공유였다. 셋째, 교리 문답 적이고, 복음 적이며, 경건주의 적인 문학을 공유하였다. 청교도 운동이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사회와 교회의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신앙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교도운동의 본질적인 것들이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경건 생활의 신약 적인 모습. 둘째, 건전한 교리. 셋째, 질서 있는 교회생활 이 세 가지 요소의 혼합이 청교도 정신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요소의 조화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청교도 운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 백스터가 추구했던 사상이므로 당연히 그의 신앙이 성경 중심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도 성경 중심적인 목회였다. 1641년 3월 리차드 백스터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은 작은 도시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의 세인트(St Mary) 교회였다. 세인트 메리 교회는 규모가 작고 형편이 어려워서 담임하려는 목사가 없었다. 국교회도 이 교회를 포기한 상태로 교인들은 일년에 겨우 4번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1642년 ~ 1647년 사이의 전쟁과 병으로 인해 떠나 있던 시절을 제외하고 1660년까지 리차드 백스터는 키더민스터에서 14년 2개월 간 모범적인 목회를 했다. 그와 그의 부목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가정별로 열네댓 사람씩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800 가정에 대해서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목요일에는 소그룹을 위한 양심문제 상담을 위해서 시간

을 할애했다.

리차드 백스터는 청교도 정신을 계승하여 키더민스터 교회를 청교도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성도들에게 영국교회의 예배가 의식주의로 만연되었음을 지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신약적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가르쳤다. 또한 백스터는 종교적 의식을 싫어하였고, 진실하고 단순한 생활을 좋아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순하고 소박하게 드리던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로마카톨릭교회의 잔재가 성경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다.

리차드 백스터의 키더민스터 교회에 목회방법은 무엇보다도 설교 준비와 연구에 전념하였다. 백스터는 키더민스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였다.

리차드 백스터는 설교할 때에 청중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사학적인 언어보다는 쉬운 말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였고, 회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화체(talking style) 설교를 도입하였다. 백스터는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설교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설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음과 억양에 주의하였다.

그의 설교의 초점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두었으며,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였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회개를 종용하였다.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였고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화답하였다.

리차드 백스터는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글을 많이 쓴 청교도 설교가요

저술가 중 한사람이었다. 그의 살아있는 정신은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것이었다. 그의 폭넓은 천재성과 관대한 정신은 그의 140여 편의 작품 속에서 잘 관찰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내용과 양식 모두의 장엄함에 있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았다. 문체의 명쾌함과 힘, 질서와 열정, 지혜와 온정, 넓이와 깊이, 목회자의 신실성과 권위는 그의 모든 글들에 함께 나타난다.

이처럼 청교도적 정신이 바탕이 된 백스터의 목회와 삶과 저서는 키더민스터에서 실천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목회적 성과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리차드 백스터의 삶과 신앙과 목회는 성경 중심적인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삶과 신앙과 목회가 일체감을 이루는 교훈적인 삶을 살았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가 크게 도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세대에 삶과 신앙과 목회에서 본을 보였던 백스터의 모습은 이 시대의 표상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장의 정체와 퇴보로 인한 위기감이 일고 있다. 이러한 기류에 여기저기에서 교회 개혁의 요구들이 거세어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리차드 백스터의 『*The Reformed Pastor*』에서 '부흥(revival)'을 추구하는 의미로의 '개혁(Reform)'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개혁이란 옛것과 기존의 것을 허무는 것만이 아닌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삶과 신앙과 목회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21세기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목회자의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는데 성경이 중심이 되어 삶과 신앙과 목회에서 통전적인 본을 보여준 리차드 백스터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곽안연,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김홍만,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청교도 신학』 서울: 옛적길, 2003.
-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 손삼용, 『영성의 거장들』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 정만득, 『미국의 청교도 사회』 서울: 비봉출판사, 2001.
- 정준기, 『청교도 인물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이성희, 『미래목회자의 조건』 서울: 규장, 2003
- 오덕교,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2.
- _____, 『청교도 이야기』 서울: 이레서원, 2001.
- _____, 『청교도와 교회개혁』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1.
- 임희완, 『청교도 삶. 운동. 사상』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9.
-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 번역 서적

- 리차드 백스터, 『참목자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 _____, 『참된 목자』 지상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_____, 『성도의 영원한 안식』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_____, 『회심』 백금산 역. 서울: 지평서원, 1999.

F. E. 마쉬, 『참사역자상』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찰스 스펀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롤란드 베인턴, 『종교개혁사』 홍치모, 이훈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마틴 로이드 존스, 『청교도신앙-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리랜드 라이큰, 『청교도-이세상의 성자들』 김성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피터 루이스,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청원 역. 서울: 청교도 신앙사, 1999.

마이클 호튼,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서울: 나침반, 2001.

에드워드 힌슨, 『청교도 신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브루스 비클, 『복음과 청교도설교』 원광연 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2003.

조엘 비키, 『청교도 전도 -성경적 접근』 서울: 청교도신앙사, 2002.

홀튼 데이비스, 『청교도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제임스 패커, 『청교도 사상』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제임스 헤론, 『청교도 역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알렌 카든, 『청교도정신』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I. D. E. 토마스 「퓨리탄의 힘」 오태용 역. 서울: 바른 신앙사, 1991.

- 에롤 헬스, 「청교도들은 누구인가?」 이중수 역. 서울: 양무리서원, 2001.
- 프랭클린 M. 지글러 『목회학 개론』 이정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5
- 제임스 브래가, 「설교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V*』 서울: 기독교
성문출판사, 1996
- W. A. 크리스웰, 「목회자 지침서」 김경신 역. 서울: 엠마오, 1988

3. 기타 자료들

- 김현애, “청교도의 거장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장신대학
원, 2000
- 황성철,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신학 연구.” 『신학지남』, 1999. 여름
- www. Godpeople. com ‘갓피플 미래 목회자 리서치’

ABSTRACT

Richard Baxter's Ministry

Lee, Yo Han
M. A. in Theology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Richard Baxter's life, faith and ministry are well described in his book, "The Reformed Pastor". Richard Baxter shows a complete image of a pastor maintaining an integrated relationship among his life, faith and ministry. The Baxter's life, faith and ministry are to achieve the objectives centered on the Bible.

Baxter did not have formal studies. But he made up his mind to become a pastor through self-studies. He learned the Reformation thoughts by reading the books written by Protestant leaders and also learned the worldview and theological thoughts based on the Bible by reading the books related to the Puritans in England.

However, it was truly the English Puritanism that provided the foundation for Baxter's thoughts. Through the Puritanism the Bible-centered attitude provided the basis for the Baxter's faith. The essence of Puritanism has the following three points. The first is the individual godly life shown in the New Testament. The second is the sound Biblical doctrine. The third is the orderly church life. The harmonization of these points was the key for the Puritan movement.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harmony of the three areas fo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Puritan movement, and those were the major influence over the Richard Baxter's ministry.

In March 1641 he started his first ministry with St. Mary located at Kidderminster which was a small town. The St. Mary Church was so small and poor that no one was willing to serve there. Richard Baxter

succeeded the spirit of Puritanism and devoted himself to reform the St. Mary Church into the faith of the Puritanism. He pointed out that the worship of the Church of England at that time was so accustomed to the formalism that it should restore the features of the New Testament worship in the spirit and truth. He refused the religious ritualism and adopted the simple worship style shown in the early church of the New Testament. Consequently the Roman Catholic residue in the church was removed, and the life of the people was changed to the flourished Bible-centered life.

In this way the integrated whole of Baxter's life, faith and ministry were applied at Kidderminster and came to bear fruits and achievements worthy to get worldwide attention. Richard Baxter's life, faith and ministry were centered on the Bible and he lived an exemplary life maintaining the harmony of life, faith and ministry.